

세계 곡물 유통, 물류 산업 동향 및 발전방향*

박 동 일
(주)STX 곡물사업본부장 상무

본고는 글로벌 곡물 유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 구성 요소와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 세계 곡물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카길(Cargill),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이하 ADM), 번기(Bunge), 루이드레뤼스(Louis Dreyfus Commodities, 이하 LDC)¹⁾ 등과 같은 곡물 메이저의 존재일 것이다. 그만큼 국제 곡물 유통 시장에 대한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과 시장 장악력은 오랜 세월을 걸쳐 수요 및 생산 국가, 단체의 통제와 견제에도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서 수매, 산지 내륙 거점 집하 및 관리, 내륙 육·하상 운송, 수출 터미널 집하 및 출하, 해상 수송, 곡물 가공 및 식품 산업에 이르는 수직적 가치 사슬 체계를 방대하고도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로 구축해 놓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세기 후반까지 곡물 메이저들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은 주로 미국을 근간으로 산지 집하 및 저장시설과 물류 거점 간 및 수출 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 및 바지 수송권

* 본고의 일부 자료는 (주) STX 곡물유통연구원 김보람 연구원이 도움을 주었음(dipark@onestx.com, 02-316-9759).

1) 세계 곡물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 4개 기업을 일컬어, 각 업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 ABCD라고 부르기도 함.

확보와 선점한 수출 터미널의 독점적 지위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곡물 유통 시장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공급 역량을 가지고 있던 북미의 공급 원천과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이 곧 시장 지배력의 거의 전부를 의미하던 곡물시장은 1900년대 후반부터 남미의 농업 개발이 가속화되고 동아시아 주요국의 수요 기반이 보다 조직화되면서 대규모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곡물 수출 물동량에서 남미의 비중 증가는 다양한 대양 항해 운송 수단의 운용 역량의 강화를 요구 받게 되었으며 당시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일본 내 종합상사 및 곡물 전문 무역상의 수요 산업 재편을 기반으로 삼아 산지 유통에 대한 직간접 시설 투자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곡물 유통업계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5대 메이저급 안에 해당되던 전통적 강자인 콘티넨탈그레인(Continental grain)과 앙드레(Andre)가 이러한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타 업체에 해체 및 인수·합병된 사례는 세계 곡물 시장이 산지 공급 유통 기반 확보만이 전부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카길, ADM, 번기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해상 수송 역량 증대와 함께 공급지 및 수요지 곡물 가공 산업을 확대하고 주요 신생 수요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취함으로써 곡물 유통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외연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성공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가고 있다.

1. 최근 국제곡물유통의 추세

1.1. 곡물 유통부문의 통합 및 상품화

시간의 경과 및 공간적 배치에 따른 가치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농산품의 특성상 곡물의 공급과정(supply process)에서 유통의 중요성은 다른 원자재의 유통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생산된 곡물의 구매에서부터 적절한 시점에 인도되기까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farm) → 트럭운송 → 역내 협동조합 사일로(silo) → 트럭운송 → 내륙 엘리베이터 혹은 강변 엘리베이터 → 철도수송 혹은 바지선 운송 → 곡물 수출터미널 → 해상운송 → 수입국 곡물터미널²⁾

2) Marion, Bruce W., Th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 U.S. Food System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6), Elise Golan, Barry Krissoff, Fred Kuchler, Linda Calvin, Kenneth Nelson, and Gregory Price, Traceability in the

표 1 북미 지역 곡물 수출터미널 현황

US Gulf		US PNW (Pacific NorthWest)	
수출터미널 명	운영기업	수출터미널 명	운영기업
Convent	Zen-noh		Bunge
Ama	ADM	EGT	Itochu
Westwego	Cargill		STX
Reserve(ADM)	ADM		ADM
Reserve(Cargill)	Cargill	Kalama	Gavilon(Marubeni)
Myrtle Grove	CHS		AGREX(Mitsubishi)
Destrehan (ADM)	ADM	CGI	Marubeni
Destrehan (Bunge)	Bunge	UGC VCR	United Grain (Mitsui)
St. Elmo	ADM	CHS Kalama	CHS
Port Allen	LDC		Cargill
		CLD	LDC
		LDC Seattle	LDC
		Temco Tacoma	CHS
			Cargill
		AGP GH	AGP

출처: 저자 작성(2013.05.06 현재).

표 2 업체별/국적별 미국 수출터미널 보유 현황

업체명	보유 수	업체명	보유 수
ADM	5	젠노	1
카길	3	미쓰비시	1
LDC	3	미쓰이	1
CHS	3	이토추	1
번기	2	AGP	1
마루베니	2	STX	1

국적별 보유현황(본사 위치 기준) 미국: 14 일본: 6 프랑스: 3 한국: 1

출처: 저자 작성(2013.05.06 현재).

상기 과정의 전반에 걸쳐, 벌크 상태에서 품질 및 위생을 유지하면서 비용 최적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의 요체이므로 각 구성 요소의 조합과 효율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운용 역량이 필수적 과제가 되어왔다. 초기 곡물상들이 발전시킨 수매 과정에서의 특화된 금융기법(financing mechanism) 못지않게 유통의 전문

U.S. Food Supply: Economic Theory and Industry Studies(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4), p.230에서 재인용하여 참고.

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전문화는 곧 산지 유통의 통합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최상위 트레이더들 간에 거래 형태화된 상품으로서의 베이스(basis) 거래가 활성화되어 왔다. 단적으로 말해 현대 곡물거상의 지위는 이러한 곡물유통 통합 상품인 베이스를 원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북미 지역의 베이스 공급권은 주요 수출 항만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수의 곡물 거상들에 의한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표 1 참조>.

현재 미국 주요 곡물 수출항에 위치한 곡물 수출터미널 19기에 대한 소유권은 전통적 메이저인 ABCD와 CHS, AGP 외에 마루베니, 젠노(全農),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등 5개 일본 기업과 1개의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표 2 참조>.

1.2. 베이스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곡물 수출터미널로부터 트레이더에게 공급되는 베이스 가격(basis price)³⁾은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선물가격과는 다른 형태의 가격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산지조달에서 수출터미널까지의 운송비용(트럭, 철도수송, 바지선), 역내 사일로 및 내륙 엘리베이터 비용, 수출터미널 이윤(elevation margin), 금융비용, 산지 출하 프리미엄을 포괄하는 각각 요소의 조합이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유통비용의 등락이 반드시 베이스 가격의 변동으로 연결되지 않기도 하는, 복잡적이며 불규칙적인 비대칭적 가격 변동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령 추수기에 일반적인 보관·수송료 등 고정 비용의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CBOT 선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농민들이 출하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여 산지 출하 프리미엄 하락폭이 제반 비용의 상승폭을 크게 넘어서게 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가격을 형성하기도 한다. 역으로, 낮은 CBOT 선물가격은 농민들의 출하 의욕을 저하시켜 프리미엄의 상승에 따른 베이스 급등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는 선물가격이나 고정 비용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수출항의 적체 현상이나 수역별 해상 운임의 구조에 따라 수출터미널 이윤에 영향을 미쳐 베이스 가격을 압박하게 하고, 유가 등락에 따른 에탄올 정제 마진의 등락 또한 미국산 옥수수 베이스 가격 변동폭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베이스 가격의 흐름을 읽고 연관 가치사슬(value chain)상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베이스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곡물 트레이더(trade

3) 선물가격-현물가격.

r)⁴⁾의 역할이자 핵심 영업행위인 것이다.

표 3 2013년 5월 6일 현재 현물 베이스스, 곡물 선물가격, 해운임 현황 (단위: USD/Mt)

구 분	US PNW	US Gulf	CBOT 선물가격
옥수수	55	24	269
대두	54	46	530
극동향 해운임	26	45	해당사항 없음

출처: STX 팬오션의 조언을 받아 저자 작성(2013.05.06).

1.3. 예상 수송 부문 역량 강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미 지역 곡물 공급량이 증가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 국가들의 곡물 수입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상 운임의 급등락에 따른 변동폭이 확대 되었다. 이에 곡물 거상들은 유행처럼 자가 수송선단 보유를 시도해왔고 이들 중 카길과 번기 등은 수백 척 단위의 파나마스급 수송 선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큼 대양 수송 역량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도 해상 운송 부문에서의 이윤이 기업 전체이윤 상당 부분에 기여했고, 해상 곡물수출에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베이스스 개념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에서 C&F(Cost and Freight: 해운임 지급조건), 즉 육해상 종합 유통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ABCD 4대 메이저가 모두 대규모 곡물 전문 선단을 운영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해운부문(선사)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국간 시장 진출을 도모하면서 동일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일본 곡물상사도 전문 선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자체 선대조직 보유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실례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양대 곡물 수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태평양 북서쪽(Pacific NorthWest, PNW)지역이 걸프 지역보다 베이스스 가격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주로 중부 옥수수, 대두 벨트에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즈 수출항에 이르는 바지 수송의 효율성이 록키 산맥을 가로지르는 철로 수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란 이유가 작용하지만, 극동 지역 수출의 경우는 파나마 운하를 경

4) 주식이나 채권 매매 시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고 거래하거나 시세를 예측하면서 고객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
5) A국의 곡물상사가 B국의 곡물을 수매하여 제 3국으로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3국 무역이라 함.

유하는 비용과 장거리 항해의 부담으로 경우에 따라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상기 2013년 5월 6일 현재 극동항 옥수수 가격은 PNW (\$350/ton=269+55+26)가 USG (\$338/ton=269+24+45) 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지만, 대두의 경우는 PNW (\$610=530+54+26)가 USG (\$621=530+46+45) 선적에 비해 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양대 수출 지역 간의 베이스스 격차는 시점에 따라 유동적 특성을 지닌다.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임이 선택적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으나, 해운 시황 고조기에는 수역 간 운임 격차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PNW가 극동항 곡물 판매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시적인 베이스스 경쟁력 우위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표 3>의 옥수수의 예에서 최근 CNF가격에서 베이스스와 해운임의 비중이 20~2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08년과 같은 해상 운임 고조기에는 옥수수 판매가에서 유통비용이 전체 곡가의 40%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큰 변동성을 지녀 국제 곡물 가격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1.4. 파나마 운하 확장과 곡물 수송

약 52.5억 달러가 투입되어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는 분명 극동항 곡물 물동량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곡물수송의 기준이 되고 있는 파나마스급(75,000 DWT)과 캄사르막스급(82,000 DWT), 혹은

표 4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 (2009)

국 가	생산량(K toe)	세계점유율(%)
미 국	22,014	43
브라질	13,863	27
독 일	2,647	5
프랑스	2,383	5
중 국	1,309	3
아르헨티나	1,080	2
스페인	1,003	2
캐나다	833	2
이탈리아	694	1
태 국	687	1
기 타	5,256	10
계	51,769	100

출처: ENERS Energy Concept, Production of biofuels in the world in 2009(Lausanne, Switzerland: 2010).
(<http://www.biofuels-platform.ch/en/infos/production.php?id=biodiesel>)(2013년 5월 6일 접속).

포스트 파나막스급(93,000 DWT) 등이 요구하는 최저 수심(11.78m)보다는 더 깊어진 약 15m의 수심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약 10,000~15,000톤의 증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극동지역 수입항 수심의 제약(일본 11.9m, 한국 평택항(14m) 제외 11.7~12m, 중국 13m)으로 전면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취급물량이 큰 수입항의 경우 해운임 면에서 최대 톤당 7~8달러의 개선 효과를 가져와 부분적으로는 미국 걸프 지역의 수출 선적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양 수역 간 (PNW-USG)의 운임 격차가 최대 20~25 달러를 넘어서지 않는 현재의 해운 상황을 가정한 상태로, 만일 해운임이 파나막스급 일일 용선료 기준으로 10,000~12,000 달러 수준 (2013년 5월초 현재는 8,000달러)을 초과하면 운하확장에 따른 미국 걸프 지역 선적의 실질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곡물과는 별개로 북중미 동부 지역 석탄과 석유 및 일반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운하 확장에 따른 역내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의 증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 바이오연료 생산과 미국의 곡물정책

미국은 한해 3억 톤 이상의 옥수수를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 약 40% 이상이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출량은 4천여 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용곡물의 에너지 전용이 국제적으로 비난 받고 있으나,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대규모 곡물 생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 농민들에게 곡물 가격의 적정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장려 수단임과 동시에 대체 에너지 자원 확충을 통한 고유가 대응책으로 매우 효과적인 농업 및 에너지 정책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브라질은 2009년 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약 70%를 생산하여 세계 에탄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표 4 참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바이오연료 산업을 바로 곡물 메이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DM과 번기는 북미 지역 바이오에탄올 최대 생산자로서 미국 중부를 아우르는 콘벨트 지역 및 곡물 수출항 인근에 걸쳐 광범위하게 에탄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메이저 기업들은 옥수수의 수매 집하 과정에서 국제 곡물 및 유류 가격 변동 추세에 맞추어 옥수수 수출 비율과 에탄올 생산비율을 조절하여 착유정제, 혹은 수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들은 점차 수요가 커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에탄올 생산 부산물인 옥수수 주정박(dried distill's grains with soluble, DDGS) 수출을 확대하며 부가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주 곡물은 옥수수인데 반해, 또 다른 곡물 생산 대국인 브라질은 주로 대두

와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역시 번기나 카길 등 곡물 메이저들이 이 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ADM은 1970년대 미국 정부가 옥수수 잉여 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부터 옥수수 에탄올 정제 사업을 입안하고 정부에 로비를 통하여 본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를 이끌어 내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한 해에만 에탄올 생산에 투여한 미국 정부의 총 지원금 20억 달러 중 13억 달러에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ADM이 단독으로 받아내기도 하였다.⁶⁾ 당시 동 회사는 한해 전체 순이익의 19%에 해당되는 금액을 에탄올 정제사업에서 벌어들였다. 이와 함께 ADM은 미국 미주리 주와 노스다코타 주, 그리고 독일과 브라질, 인디아, 인도네시아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4억5천만 갤런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1997년 최초 진출한 이래 론도노폴리스, 파라나구아 등지에 다수의 대두 가공 공장을 인수하기 시작하여 현재 최대의 대두 박 생산 및 공급업자의 위치에 올랐고, 에탄올 산업에서 북미뿐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최대 생산업자의 위치를 노리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도 ADM은 싱가포르의 식품 거상인 윌마(Wilmar)와 합작을 통해 역내 최대 식물유 정제 및 공급업체로 부상하였다.

또 다른 메이저인 카길은 초기에 바이오연료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1년에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 시설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연간 2억 3,500만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해 내고 있다. 북미에서의 투자 외에도, 영국 최대의 바이오연료 업체인 그린에너지(Greenenergy Biofuels)를 인수했고 독일과 벨기에 굴지의 식물유 가공공장을 사들였다. 또한 아르헨티나에 있는 세계 최대의 대두 가공 공장을 인수하고 브라질의 Usina Sao Joao그룹과 합작으로 사탕수수, 에탄올 및 전력 생산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번기의 경우 북미에서는 주로 옥수수 수매 및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굴지의 에탄올 생산업자와 제휴하고 바이오디젤 기업과 합작한 뒤 대두를 공급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북미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업 REG(Renewable Energy Group)의 공장에 식물유 가공 공정을 함께 건설하고 공급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브라질 내 사탕수수 가공업체를 사들여왔고 2010년에는 약 10억 달러의 농업 기금을 조성하여 사탕수수 재배사업에도 진출하였다.⁷⁾

6) Sophia Murphy, David Burch, Jennifer Clapp, *Cereal Secrets: The World's Largest Grain Traders and Global Agriculture*(August 2012), Oxfam Online Report, www.oxfam.org, p.44 (2013년 4월 15일 접속)

LDC는 미국과 캐나다에 식물유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활발한 식물유 가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대두 가공 공장과 팜오일 가공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사탕수수 가공 공장과 재배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주 클레이폴(Claypool)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2009년에는 독일 빈텐베르크(Wittenberg)에 연산 20만 톤의 바이오디젤 정유 공장을,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지역에 대규모 바이오디젤 정제공장을 증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식량의 에너지 전용이라는 이슈와 남미 대두 생산을 위한 아마존 개발의 문제점들이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농업과 에너지의 모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 산업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특히 곡물 메이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곡물 유통 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해냄으로써 기존의 가치사슬 사업의 획기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유통 시너지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확보하는 최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6. 금융과 세계 농업(유통) 투자

전통적으로 농업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직접 금융 기능은 메이저인 ABCD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 분야의 시장 참여자의 면모와 활동 형태는 매우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대출지원의 형태로 농업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을 공급해오던 전통적인 상업은행 부문들이 직접 농업 관련 자산을 취득하고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태이다. 2011년에 펴낸 ILC(International Land Coalition, 국제토지연합) 문서에 의하면, 2000~2010년 사이 영국국토 면적의 여덟 배 이상에 해당하는 약 2억3백만 ha의 농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발표되었다.⁸⁾ 이러한 투자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 국부 펀드부터 각종 연기금 및 헤지펀드, 개인주식펀드 등을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곡물상사들도 외부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자금을 업고

7) Ibid., p.46

8) Ward Anseeuw, Liz Alden Wily, Lorenzo Cotula, and Michael Taylor, Land Rights and the Rush for Land: Findings of the Global Commercial Pressures on Land Research Project(Rome: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2012), p.19

곡물 기업의 합병이나 기반 시설 취득 등 활발한 M&A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곡물 유통업계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듯 활발한 인수합병 및 시설확보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업체는 단연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이다. 지난 해 40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 미국 내 3위의 곡물 유통시설을 보유한 가빌론(Gavilon)사를 합병했고 최근에는 이 인수합병에 대한 거대 판매자의 독과점 관련, 조건부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다.⁹⁾ ADM은 호주의 주요 곡물 유통기업인 GrainCorp사를 사들였으며, 브라질 수출 터미널을 추가로 매입하고, 월마 사와의 중국 내 곡물유통 합작사를 설립하였다. 카길의 경우 북미지역 엘리베이터 및 카놀라 가공 공장에 투자하였으며,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는 남미 곡물기업인 세아그로(Ceagro)사를 사들였다. 글렌코어(Glencore)는 캐나다 굴지의 유통회사인 비테라(Viterra)사를, CHS는 일본 토멘(Tomen)상사의 북미 곡물 자산을 사들이고 남미 곡물 터미널을 인수하였다. 이외에도 LDC는 북중국 지역의 대두 농장에 대한 직접 투자, 싱가포르 투자청의 번기 지분(5%) 매입, 번기의 남아프리카·중동지역 농업기업 투자 등이 지난해 이목을 끈 주요 업체들의 곡물 관련 인수합병(M&A)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2012년 주요 곡물 업계 M&A 현황



출처: 저자 자체 작성(2013.05.06).

9) 마루베니와 가빌론의 총 중국향 대두 판매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를 상회함.

이외에 주목할 만한 한 부분은 중국 기업의 남미 농업에 대한 직접 투자이다. 중국 농업 기업인 헤이룽장 베이다황 그룹(Heilongjiang Beidahuang Group)은 남미 대두 농장을 사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최대 농업 기업인 크레수드(Cresud)와 합작 기업을 설립했고, 충칭그레인(Chongqing Grain)은 브라질의 바히아(Bahia) 주와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두 재배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정부는 국내 곡물 시장에서 메이저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1.7. 일본과 중국의 최근 곡물 유통산업 평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곡물유통 시장에서 쟁노, 마루베니 등을 비롯한 일본 곡물상사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 스토리를 작성해 가고 있다. 미국 내 곡물수매 사업 진출 확대 및 주요 곡물 수출터미널 확보를 통해 자국 시장을 넘어 중국, 동남아 등지로 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가는 행태는 지난 세기 곡물 메이저들의 성장 과정을 적절히 답습해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수출 판매물량에 국한해 5~6개 일본계 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4대 메이저들과 더불어 당당히 한 축을 형성할 만한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본 종합상사들은 자사의 우산 아래 있는 확고한 수요산업 기반을 발판으로 지난 수십 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산지의 공급 인프라를 확보해가면서 독자적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금세기 들어 급증하게 된 동아시아 시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최대 곡물 판매 시장으로 변한 중국의 경우도 해당 정부의 고민을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중국 내 외국계 대두 가공업자의 영업 확대를 엄격히 규제하고 국적 기업에게만 사업 확장 기회를 부여하는가 하면, 연이어 국영기업들의 대단위 남미 농업 투자 계획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외 농지에 대한 직접 투자의 막대한 투자비 대비 효율성 측면이나 우려하는 식량 안보의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 해외농업 투자의 과거 시행착오 과정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검증되어야 할 장기 과제가 될 것이다.

2. 한국 국제 곡물유통 산업의 진화과 과제

약 3억 6천만 톤에 달하는 전 세계 주요 곡물(밀, 대두, 옥수수)의 교역량 가운데 국경무역이나 연근해 교역을 제외하면 전체 대양교역 물량의 2/3가 동아시아항(2012년

한중일 삼국 기준, 약 1억7백만 톤) 물량이다. 지정학적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지닌 우리나라 수입량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 땅에 제대로 된 곡물 전문 유통기업 하나를 육성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국 상사 계열화의 우산 아래 독자적 공급역량을 육성해온 일본의 시스템에 비해 완전 국제 공개입찰 수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적 상사들에게 초기 진입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었던 곡물구매 시스템에도 간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 식품산업 전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서의 독자적 국제 곡물 공급망 구축 작업을 수행할 국적 곡물유통 기업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정부와 기업가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측면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일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 아래 전문인력 육성, 체계적인 대규모 해외투자, 그리고 연관 가치사슬 구성을 수반해야 하는 곡물 유통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단기간 성과를 지향하는 속성을 가진 사기업이 독자적으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 나가기에는 본질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백년 이상을 발전시켜온 거대 곡물상이 장악한 동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감안한다면 국가 차원의 공익적 비전 설정과 정책적 육성 방안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곡물 유통과정에 있어 곡물 메이저 기업들의 수익구조에 관심을 가져보면 의외로 곡물 자체의 가격적인 측면, 즉 상품유통 자체의 이윤보다는 곡물을 매개로 구축된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가치사슬 요소의 통합운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수매과정에서는 종자업체 또는 비료 공급자 및 금융의 주체로서, 육상·하운·해운 운송 과정에서는 운송기업으로, 각종 물류 기반시설 및 엘리베이터 운영업체로, 사료제조 및 식용유 혹은 바이오연료 제조업체로서 운영된다. 이처럼 종적인 통합과 더불어 횡적인 영역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통합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곡물가격 급변에도 영향 받지 않는 전체 가치사슬의 통합에 의한 항구적 수익창출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들 메이저 기업들의 전체적인 기법인 것이다. 따라서 곡물 메이저들의 트레이딩은 곡물을 매개로 이러한 거대 조직을 연결하는 핵심 동맥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 곡물 상사들을 포함한 몇몇 주요 기업들이 전통적인 곡물메이저의 행보를 답습하며 곡물 유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동안, 기존의 메이저 ABCD 트레이더들은 기존의 식품 분야와 연계하여 새롭게 개척한 금융과 바이오에너지 및 해상운수 분야에서 산업의 막강한 주도 세력으로 등장,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고 있다.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농업 전문 투자금융업이나, 주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사업, 트레이딩과 해운의 결합 등은 분명 우리가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곡물 유통 분야의 진화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도 지금까지 곡물 산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온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초의 지점에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몇 가지를 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옥수수 에탄올 정제 사업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도외시하여야 하는가? 생산국과 수입국 간에 해상 수송비 외에 가격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석유정유 산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결국 옥수수나 대두 등을 부산물이나 오일(에탄올)의 형태로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자재 수입가공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당량의 곡물을 비축하여야 한다면 기간이 경과된 비축분 재고를 에탄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 생산된 막대한 부산물(DDGS)은 고급 사료 곡물 수입 대체 효과를 보게 되지 않는가? 이러한 산업의 확장은 새로운 곡물 가공산업 발전과 신규고용 효과 및 석유를 대체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또한 위기 시 물가관리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열거한 최근의 국제 곡물유통 산업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곡물유통 산업 수준은 세계적 곡물 기업들의 현재 위상 및 발전 속도와 한 선상에 놓고 비교를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그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만큼 반드시 해야 할 것도 또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곡물산업의 미래이다. 비록 세력화 되지는 못했지만 세계 5위권 규모의 곡물 수입시장과 수요산업을 지니고 있고 개별 분야별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농업단체와 유관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이 개별 산업체들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곡물 가치사슬을 이룰 수 있도록 곡물전문 유통기업 육성 등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곡물자원, 금융, 유통, 운송, 가공 산업 등 전통적 산업에서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면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올바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Elise Golan, Barry Krissoff, Fred Kuchler, Linda Calvin, Kenneth Nelson, and Gregory Price, *Traceability in the U.S. Food Supply: Economic Theory and Industry Studies*(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4)
- ENERS Energy Concept, *Production of biofuels in the world in 2009*(Lausanne, Switzerland: 2010) (<http://www.biofuels-platform.ch/en/infos/production.php?id=biodiesel>)
- Sophia Murphy, David Burch, Jennifer Clapp, *Cereal Secrets: The World's Largest Grain Traders and Global Agriculture*(August 2012), Oxfam Online Report, www.oxfam.org (2013년 4월 15일 접속)
- Ward Anseeuw, Liz Alden Wily, Lorenzo Cotula, and Michael Taylor, *Land Rights and the Rush for Land: Findings of the Global Commercial Pressures on Land Research Project*(Rome: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2012)